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경제전략연구본부	성명	김주현	직급	부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p>○ 출장목적 : 한국-일본-호주 3국이 개최하는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해양협력 세미나' 세션3의 한국측 연사로 참여, 발표 및 토론</p> <p>○ 관련사업 : 없음</p> <p>- 호주의 아세안 대상협력 프로그램인 Aus4ASEA NFutures Initiative 사업 예산으로 국외출장 전체 일정의 예산 지원</p> <p>* 11/23~26일 왕복 항공권(이코노미석), 숙박비 및 일/식비 등 체제비 일체 지원</p>					
출장기간	2023.11.23.(목) ~ 2023.11.26.(일) (2박 4일)			출장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11.23.(목)	부산(08:10)→싱가폴(13:35), 싱가폴(16:10)→자카르타(16:55)	항공 이동			SQ615, SQ962
		Hotel Gran Mahakam 인근 식당	주아세안대한민국 대표부 초청 만찬 및 회의			-
	11.24.(금)	ASEAN Headquarters, Jakarta (09:00~17:00)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해양협력 세미나 참석 및 발표			-
		ASEAN Headquarters, Jakarta (18:00~20:30)	주아세안호주대표부 (Aus4ASEA NFutures Initiative 프로그램 사무국) 초청 만찬			-
	11.25.(토) 11.26.(일)	자카르타(19:00)→싱가폴(21:55), 싱가폴(23:30)→부산(06:35)*1	항공 이동			SQ965, SQ616
출장성과	<p>○ 출장목적 달성 정도</p> <p>- (직접) 제1회 AOIP 해양협력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8/4) 완료</p> <p>- (간접) 아세안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해양협력 의제 파악,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p> <p>○ 주요 성과</p> <p>- 아세안의 주요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인 한국, 호주, 일본 3국이 함께 개최한 제1회 AOIP 해양협력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이 해양협력에 관해 가지고 있는 관점과 그간의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가능한 프로젝트에 관해 소개</p> <p>- 외교부에서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해수부에서 발표한 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에 관해 소개하고 해양정책과에서 매년 수행중인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와 동향자료집인 블루 이코노미에 관해 홍보</p>					
향후계획	<p>○ 출장 성과 공유 계획</p> <p>- 인도네시아 및 호주 전문가는 한국의 해양경제 부문의 협력에 관해 관심을 표시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제안한 바, 원내 관련 부서와 전문가에게 출장 내용 공유 예정</p> <p>○ 정책화 등 활용 계획</p> <p>- 향후 '블루 이코노미 협력 및 확대를 위한 연구'를 주제로 원내과제 수행을 위한 제안서 작업에 이번 출장 결과 활용</p> <p>-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또는 해양정책과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활용방안 검토</p>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없음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업무②	11.24.(금) 09:00~17:00, AOIP 해양협력 세미나 참석 및 발표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OIP 해양협력 세미나’의 ‘세션3. Opportunities in the Maritime Domain and the Way Forward’ 발표 및 토론 - 이번 해양협력 세미나는 호주측의 제안으로 ASEAN의 대화 파트너인 한국, 호주, 일본이 ASEAN 사무국과 Aus4ASEAN Futures의 지원 하에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에 기반한 해양협력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동 세미나는 첫번째 AOIP 해양협력 세미나로 ‘AOIP Seminar Series on Maritime Cooperation: Taking Stock and Looking Beyond’라는 주제 하에 세개의 세션이 운영되며 1) ASEAN 해양 부문의 현황 검토, 2) 직면한 과제 파악 및 3)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논의할 예정임 *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으로 아세안 차원의 인태전략이며, 역내 협력 원칙으로 포용성, 투명성, 개방성, 규칙기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해양, 지속가능개발, 경제, 디지털을 4대 핵심분야로 선정하였음. - 이러한 배경하에 ‘세션 3: 해양 분야의 기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Opportunities in the Maritime Domain and the Way Forward)’에서는 해양산업 및 연안 지역의 경제적 전망, 어업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적 실천, 생태관광, 기타 사업분야 및 외부 파트너를 포함하여 ASEAN이 추구할 수 있는 기타협력에 관해 논의 예정이며 한국은 ‘AOIP 해양협력을 위한 한국의 청색경제 현황과 시사점’에 관해 발표 예정 - (발표 가제목) Blue economy; From Korean Perspective and Implication for Indo-Pacific Maritime Cooperation, 발표자: 김주현 KMI 부연구위원 □ 기타 의제 논의에 참석하여 동향 파악 - 세션1(인도-태평양 해양 협력: 설문조사) 및 세션2(인도-태평양 지역이 해양 부문에서 직면한 과제) 등 해양수산 관련 주요 의제에 관한 중점 논의사항 파악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AOIP, 해양협력, 국가/지역간 협력이라는 3가지를 강조하였으며, 규범적 측면의 강조와 실질적인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호주측 연사(Jennifer Parker 박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해양안보, 특히 항만에서의 사이버 공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한국이 해운, 항만 등의 해양산업이 발달했다는 점에서 해상안전 및 안보 측면의 협력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하였음. - 이와 관련해 KMI 항만연구본부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가가 있다고 소개함 □ (일본) 일본은 파트너십 측면을 강조했다며 아세안 지역에서 Japan-ASEAN International Fund(JAIF)를 통해 2,4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 -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일본은 노력할 것임. 또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임. - 일본측 연사인 Makoto Setata 교수는 IUU 어업과 불법 행위, 대응방안에 관해 소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소개하였음 - Makoto Setata 교수는 KMI 전문가와 이미 수차례 교류가 있었다고 밝히며 향후 관련 연구 분야에서의 교류에 관해 관심을 보임 □ (한국) 윤석열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 협력인 KASI를 발표하였으며 해양안보 측면에서 규칙기반의 원칙을 기반으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안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아세안과의 해양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협력 대화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며 특히 해양환경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해양경제 데이터와 지표개발, 공동연구 발굴 등의 측면에서 협력을 제안함 * 상세내용은 [별첨1] 참고

[별첨1] AOIP Seminar Series: “Maritime Cooperation: Taking Stock and Looking Beyond” 주요 논의내용

□ 워크숍 소개 및 환영사

*** 연사: H.E. Will Nankervis, Australian Ambassador to ASEAN**

- AOIP, 해양협력, 국가/지역간 협력이라는 3가지를 강조하였으며, 규범적 측면의 강조와 실질적인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을 언급
 - (1. AOIP) 호주는 아시안 리더십에 대한 강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AOIP에 기반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다양한 교육훈련과 인재양성 등의 측면에서 아세안 지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2. 해양영역) 해양은 협력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보유하고 있음. 아세안은 블루이코노미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으며, UNCLOS와 같은 해양법의 존중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협력은 증진하고 경쟁이나 분쟁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수 있음.
 - (3. 해양부문에서의 인태) 내년 3월에 호주-아세안 대화 50주년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며 이 행사에서 해양과 관련된 학술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 오늘 이 포럼에서 구체적이고(concrete), 실천적이며(practical) 협력적인 대화가 충분히 있기를 희망하며 향후 추진가능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환영함

□ 축사

*** 연사: H.E. Kiya Masahiko, Ambassador of the Mission of Japan to ASEAN**

- 해양협력, AOIP, 파트너십에 관한 일본의 관점
 - (1. 해양협력) 해양은 AOIP의 중요한 협력분야 중 하나로 일본의 경우 2013에 아베신조가 자카르타에서 열린 바다에 관해 연설을 하였음.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해양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평화로운(open free peaceful)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함.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해양에 관한 비전 또한 발표함
 - (2. AOIP) 2019년에 AOIP가 발표되었고 일본은 발표되기 1년전부터 계속해서 AOIP의 관점을 지지해왔음. 1982년 UNCLOS에서도 자유로운 항행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양 경제 측면에서도 자유롭고 열려있으며, 투명하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3. 파트너십) Japan-ASEAN International Fund(JAIF)를 통해 2,4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일본은 노력할 것임. 또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임

□ 축사

*** 연사: H.E. Lee Jang-Keun,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SEAN**

- AOIP의 의미와 한국의 AOIP 관련 협력과 이니셔티브
 - (AOIP의 의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녹여낸 것으로 미래 지역협력을 위한 방향 또한 담고 있음. 2019년 AOIP의 채택이후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해양협력은 4가지 중점 협력 분야 중 1개임
 - 한국 또한 평화와 번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협력,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추진하고 있음. 66%의 직접투자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천연자원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 또한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윤석열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 협력인 KASI를 발표하였으며 해양안보 측면에서 규칙 기반의 원칙을 기반으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안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또한 아세안과의 해양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협력 대화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며 특히 해양환경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 또한 2024년에는 아세안과 한국의 대화 파트너십을 공고히하고 축하하기 위한 CSS를 개최함으로써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 개회사

*** 연사: H.E. Sidharto Reza Suryodipuro, Director-General for ASEAN Cooperation, SOM Leader ASEAN-Indonesia, Republic of Indonesia**

- 해양협력의 포괄적인 논의와 해양의 역할과 규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
 - 이번 포럼의 주제는 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고속도로로 해역, 수역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며 또한 해양의 평화와 활용에 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결정됨
 - 해양영역은 회복성, 연결성, 인프라, 연안경제, 기후위기, IUU 어업 등 다양한 도전과제가 산재한 영역으로 많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남중국해 문제, 해양안보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존재하는 영역임
 - 아세안 지역에서의 해양의 역할과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세안의 중심성과 리더십을 정립하고 지정학적 변화와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함

□ 기조연설

*** 연사: H.E. Dr. Kao Kim Hourn, Secretary-General of ASEAN**

- 아세안 지역의 해양관련 현황과 AOIP를 통한 향후 해양협력의 중요성 확대
 - 2019년 AOIP가 채택된 이후로 아세안 회원국 간의 진전이 있었음. AOIP는 inclusiveness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대화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참여 또한 염두에 둔 것임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며 경쟁을 피하고 성과가 있으며 실천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인도태평양 지역은 재화와 인력간의 교류가 활발히 발생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이 존재하는 곳으로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긴 연안선을 가진 상위 10개국 중 하나이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세계 상위 10대 수산업 국가임
 - 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지역은 무역, 에너지, 안보, 해상교통로, 자원 등에서 활발한 활동과 함께 중요성과 우위를 지니고 있음
 - AOIP의 채택으로 해양협력은 중요한 협력분야로 부상하였으며 향후 해양부문에서의 회원국, 그리고 대화 파트너 간의 활발한 협력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됨

I. Session 1. Maritime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_Survey 발표내용

1) 발표자1: Ms. Jane CHAN, Senior Fellow and Coordinator of the Maritime Security Programme at th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SIS) i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Singapore

* Jane 박사는 남아시아와 해양안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난양이공대 전문가 - 아세안 맥락에서 해양영역의 이슈를 다루게 된 자리에서 다음의 3가지 견해를 공유하고자 함

- (1) share an assessment on the current state of affair in ASEAN's maritime domain
 - 해양분쟁(conflict)에 있어 '컨센서스'의 부재에 관한 문제를 제기. 아세안 지역 국가들은 해양분쟁, 해양이슈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음
- (2) share an assessment on how the ASEAN Maritime Outlook fit into the picture
 - AOIP는 하나의 전략으로 기능하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양협력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가 지역 수역(해역)에서 어떻게 안보, 안전 문제를 관리하고 풀어나갈지에 관한 논의가 더욱 진전될 필요가 있음
- (3) raise value propositions of the ASEAN model of cooperation
 - 유연하고 현실적인(실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보공유와 생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의 형성과 기술이 요구됨
 - 또한 상호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협력의 선결조건임

2) 발표자2: Dr. Achmad Gusman Catur Siswandi, SH., LL.M., Lecturer, Faculty of Law, Padjajaran University, Indonesia

* Achmad 박사는 국제법, 국제해양법 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

-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 또는 전략 상의 논의
 - AOIP 상에는 해양협력과 관련해 해양오염, 해수면 상승, 해양 쓰레기, 해양환경의 보존과 복원을 포함하고 있음.
 - 1982년의 UNCLOS 또한 생물자원의 보전과 해양환경의 연구 및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지역의 국제해양법협약 당사국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 협약의 발전
 - (글로벌) IMO 2050 이니셔티브, FAO의 IUU논의, 생물다양성 협약,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UN의 총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BBNJ 협약 등이 있음
 - (로컬) 지역차원에서는 IORA, Coral Triangle Initiative, PEMSEA, COBSEA 등을 통해 해양 환경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아세안 또한 다양한 대화를 통해 해양환경 이슈를 다루고 있음
- 해양환경 부문에서의 인도태평양 협력 현황
 - TOKYO MOU는 선박의 통과와 기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 또한 마찬가지임
 - CIEL(2022)은 해양쓰레기와 해양 플라스틱에 관한 총체적이면서 지역적 수준에서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
 - ASEAN Initiative 또한 'Combating Marine Debris'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양쓰레기

의 문제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 현재 구속력을 가진, 그리고 구속력을 가지지 않은 다양한 문서와 협약, 규제 등이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음
- ‘기후위기’는 다층적 이슈로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식량 위기와 안보 및 거주지 문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이슈임
- (해양 재생에너지) 해양과 기후 그리고 에너지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에 있어 중요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 또한 해양 재생 에너지 자원과 개발이 국가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이미 발표된 전략과 이니셔티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세안 중심의 매커니즘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
- 아세안 해양 전망(ASRAN Maritime Outlook)에서는 해양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세안 해양 포럼의 운영,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조직), 그리고 협력 활동과 과제 등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

3) 발표자3: Dr. Makoto SETA, Associate Professor at Waseda University

* 해양법에 관한 전문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IUU 어업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에 관해 논의

○ AOIP의 중점 협력분야 중에서도 해양협력과 UN의 2030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불법조업 문제를 다룰 수 있음

- 인도태평양에서 어업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과 관련해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IUU 어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지역 문제로 다뤄지고 있음

○ IUU 어업과 불법 행위, 대응방안

- IUU 어업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조업행위에 있어 허가되지 않은 어업행위, 그리고 강제된 어업 부분의 노동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응방안으로 모니터링, 수산물 라벨링, 보조금 규제 등이 활용되고 있음
- EU는 형사법을 통해 환경보호를 추진하고 있으며 IUU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험

- 2004년 9월에 ReCAPP이 채택되었으며 2006년에 14개 국가에서 발효되었음.
- 인도네시아는 2009년 45호로 해양수산자원 감시와 규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외국적 선의 조업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음

○ JICA의 해양협력

- 국제법에 관한 훈련과 인식증진,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석사학위 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Q&A 1. AOIP의 해양협력에 관한 10개 중점 항목들은 굉장히 많은 포럼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충분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함. 이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아세안 지역의 회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Dr. Jane: 이렇게 많은 포럼과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어서라고 생각되나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기록으로 쌓아나가고 논의를 확대하며 중복성의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는 매커니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Dr. Achmad: 본인 역시 얼마전 이런 유사한 아세안 포럼에 참여하였으며 당시 법적인

로 구속력을 갖는 규제와 문건에 관해 논의하였음. 이미 앞서 발표에서 언급하였듯이 ASEAN MARITIME OUTLOOK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양협력을 위해 상호 연결되고 해양협력 포럼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등의 물리적 부문의 강화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Dr. Makoto: 이미 이러한 주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유사한 회의와 협의체 등은 존재하고 있음. 일본은 아시안개발은행을 통해서 협력하고 중국은 AIIB 등을 통해 논의를 추진하고 있음. 수단측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어떤 형태의 협의체나 조직 등이라도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Q&A 2. 아세안 연안지역의 해양협력은 해양안보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 주도의 원칙기반이 강조되어 있는데 시민사회나 민간 부문의 참여나 형태는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가?

→ Dr. Jane: 더 나은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과 소통,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이 모두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함

→ Dr. Achmad: 오늘 발표한 내용중 해양에너지 부문은 충분히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하며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함

→ Dr. Makoto: 일본의 어업 정책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지속가능한 어업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족자원의 확보 등을 추진하였음. 이러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해 수산, 에너지 분야의 산업계의 목소리와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속했음

II. Session 2. Maritime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_Survey 발표내용

1) 발표자1: Dr. Evan A. Laksmana, Senior Fellow for Southeast Asia Military Modernisation, IISS-Asia

* Dr. Evan은 지난 11회 EAMF에 참여한 전문가로 해양안보를 중점적으로 연구

- (해양안보 개념) 해양안보의 경우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시각 차이 등이 존재
 - 남중국해 문제 등 국가마다 해양안보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접근
- 해양의 투명성(transparency)
 - 투명성과 관련해 논의할때는 단순히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또는 공표하는 안보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와 정책상의 투명성 또한 연관되어 있음
- 해양 군사력 부문의 이슈
 - 이 지역에서 군사적 역량은 관할수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룰줄 아는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이 연관되어 있음
 - 해양안보의 딜레마는 특정 국가가 해양 공간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량을 개발할수록 주변국이나 다른국가들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게 된다는 점임
- 위기관리의 중요성과 제안
 - 현재의 위기관리 수준은 잘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통합성과 포괄성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안보를 담당하는 특정 부문에서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노력과 협력이 요구됨
- 아세안 관점에서의 해양안보
 - 아세안 수준에서도 해양안보를 논의하고 다루기 위한 다양한 회의들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해양안보에만 집중해서 단독으로 진행되는 논의의 장은 제한적인 상황임
 - 또한 해양안보를 특정 국가간 장관급의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2) 발표자2: First Admiral Arif Badrudin, Deputy Governor of the Indonesian Naval Academy

-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해양플랫폼의 제거
 - 항해상의 위협과 환경상의 위협 존재
 - 2010년 기준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1,733척의 해양플랫폼과 같은 구조물이 존재하는데 제거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무게등의 이슈로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철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1982 UNCLOS 하의 해적행위
 - 101조에는 해적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특정국가의 관할 수역이 아닌 공해같은 곳에서 민간의 선박 등을 대상으로 억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함
 - 모든 국가는 전함을 활용해 해적선을 나포하고 관련 해적행위를 저지하려고 노력중
- 문제성 조업활동(파괴적 조업)
 - blasts fishing은 실제로 2015~2016년에 bomb fishing 으로 Natuna 섬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잠재적으로 파괴적 조업이 발생할 수 있는 후보지역을 조사함
 - 뿐만 아니라 해경과 같은 공무원이 직접 어민으로 위장으로 하고 피의자로 의심되는 어

- 민의 선박에 접근하여 체포하는 방법으로 대응함
- 이런 파괴적 조업 행위는 단순히 어족자원에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어민과 잠수부, 그리고 해양환경과 생태계에도 피해를 미침

3) 발표자3: Ms. Jennifer Parker, Senior Adviser, National Security Colleg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해양협력과 사이버 보안

- ASEAN Maritime Outlook에서는 해양안보와 관련해 사이버 공격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호주는 ‘2023~2030 호주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호주 항만운영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대응하고 방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호주의 물자 중 98%는 항만을 통해서 수송되고 있으며 항만보안은 호주 경제와 산업에 매우 중요함
- DNV(2023)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 중 60%는 향후 몇 년내에 사이버 공격이 선박 충돌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 또한 76%는 사이버 사건이 전략적 해상 교통로 확보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

○ IMO 해사 사이버 리스크 지침

- 사이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정의하고 관련된 시스템, 자산, 데이터 및 역량을 확인

Q&A 1. 일본은 IUU 행위 등과 관련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해양협력 부문의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아세안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추후 협력가능한 방향은 무엇인가?

→ Dr. Evan: 일본은 아세안과 많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협력을 아세안 수준 뿐만 아니라 지역 범위를 넘어서도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또한 해양안보 뿐만 아니라 비교적 덜 민감한 환경, 경제와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Q&A 2. IMO가 이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세안과 같은 특정 지역 단위로 해양 사이버 공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가?

→ Dr. Jennifer: IMO 가이드라인은 지역에서 논의되는 사이버 공격이나 행위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지역은 지역별 규범이나 특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고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III. Session 3. Opportunities in the Maritime Domain and the Way Forward 발표내용

1) 발표자1: Dr. Shafiah F. Muhibat, Deputy Executive Director for Research,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Indonesia

- 아세안 대화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는 해양부문의 이슈와 과제에 관해 그동안 아세안에서 발표된 문건과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 아세안 지역은 기본적으로 해양안보와 해양안전 등 전통적인 이슈에 관한 협력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해양협력을 위해 아세안에서 발표한 아세안 블루이코노미 아웃룩 등에서는 해양환경 보존, 해양기술 및 인프라 등으로 협력 주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일본, 호주 등 대화파트너의 참여 가능 분야도 확대되고 있음
- AOIP 문건에서도 해양협력에 관해 연안 공동체부터 블루이코노미, 해양과학기술협력 등 다양한 해양영역 이슈를 총망라하고 있음
 - 대화 파트너들이 참여가능하며 풍부한 경험을 지닌 영역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주제에서 협력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

2) 발표자2: Dr. Sherwin E. Ona, Associate Professor and the Former Chairperson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evelopment Studies, De La Salle University, Philippines

- 아세안 지역에서 해양 영역에 관한 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을 제고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함
 - 안보부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의 연안관련 주무부처와 해경 등이 관여할텐데 연안과 해양에 대한 다양한 정찰(surveillance)과 감시 프로그램이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음
 - 아세안 지역에서의 동일한 정찰 프로그램의 개념과 운영을 추진하는 것은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음
- 모범사례의 공유
 - 해양안보와 관련해서는 최근 드론, 자율주행 운반체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양경비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
 - 지역경제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에 관한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음
-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협력 논의에서 민간영역이 기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할 수 있음

3) 발표자3: 발표자3: 김주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블루 이코노미 관점에서의 해양협력
 - AOIP의 협력분야 크게 4가지가 있고 이 중 하나가 해양협력으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블루 이코노미의 발전을 포함하고 있음. 최근 해양분야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어민, 자원 등의 이슈도 포함하고 있음
 -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이라는 공간과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양의 환경, 인력, 산업 등 모든 부분과 연관되어 있음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해양협력 현황
 - 한국 또한 AOIP와 유사한 관점에서 해양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 하

나가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임.

- KASI는 8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8개 중점과제 중 3번째 ‘한-아세안 포괄 안보 협력 확대’는 해양안보 등 역내 규칙 기반 질서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양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ASEAN멤버 국가와의 해양협력기금을 활용한 해양 분야 사업 추진, 해양협력 채널 확대, 해양플라스틱 오염 저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 한국의 해양수산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는 2023년을 기준으로 총 30개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28.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 주요 파트너 국가는 아시아, 태평양도서국 및 아프리카 순으로 국제협력의 방향을 크게 기후변화 위기 대응체계 구축, 스마트 수산양식 성장기반 조성, 소규모 어촌 특화개발, 해양플라스틱 생애주기 관리로 설정하고 해양수산을 통한 해양협력을 브랜드화하고 있음.
- 2023년을 기준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계획된 사업들은 블루 이코노미를 구성하고 있는 해운업, 수산업, 해양환경, 어촌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2023년의 협력사업에는 스마트 양식, 친환경 및 디지털라이제이션 등 새로운 기술과 최근 환경문제 등 현안을 고려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

- 한국은 지난 5월 2023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ference on Oceans and Fisheries)에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해양”, 위기 극복에 기여할 “첨단기술”,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세 축으로 하는 동반성장 전략인 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를 발표하였음.
- KOEI는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양환경 보전, 인재 양성 등 4대 추진전략에 따른 대한민국의 중점 추진과제와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네 가지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한국은 Korea Ocean Economy Alliance를 구성할 계획이며,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지역 협력 네트워크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임

○ 향후 해양협력을 위한 과제제안

- (해양경제 데이터 수집 및 지표 개발 연구) 해양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계획 수립과 전략 추진이 중요함.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경제 데이터 수집과 지표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국가별, 지역별 해양경제 여건, 정책, 주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양경제 최신 동향 자료집을 함께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후 아세안 블루 이코노미 테스크포스가 출범하면 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대화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 한국은 매년 해양수산부와 KMI가 해양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종사자 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해양산업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음. 또한 각국의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등에 관한 주요 지표와 데이터를 정리하고 최신 정책과 뉴스를 정리한 동향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음. 이러한 한국의 경험이 향후 데이터 및 지표 개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해양수산 주요 이슈 기반의 공동연구) 최근에 발표된 ASEAN Maritime Outlook에서 강조하는 주요 해양 도메인 이슈와 ASEAN Blue Economy Framework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이슈는 매우 포괄적임. 한국, 호주, 일본을 비롯한 대화파트너와 AMS의 강점과 경험을 고려하여 향후 참여가능한 공동연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블루 이코노미 정책과 데이터, 그리고 해운, 조선과 같은 산업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호주는 아세안과 함께 해양 안전 및 수색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생물다양성 부문에 있어 풍부한 자원과 경험을 지니고 있음. 일본 또한 수산, 항만, 조선 등 해양산업이 발달하였고 블루 이코노미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별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해양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

□ 폐회사

*** 연사: H.E. R.M. Michael Tene, Deputy Secretary General of ASEAN for the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

- 아세안은 해양협력에 있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력을 추진해왔음
 - 수산업, 해양환경 등에서 다양한 아세안 회의와 논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이니셔티브의 발표와 문건 채택이 이어지고 있음
- AOIP가 이 지역에서의 해양협력을 추진하면서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이 지역에서의 번영을 추구함
 - 아세안 회원국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AOIP의 이행을 주류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대화 파트너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 그리고 오늘 이 회의가 해양협력을 위한 일련의 활동 중 의미있는 첫 번째 회의가 되기를 희망함

[별첨2] 제1회 AOPP 해양협력 세미나 사진 자료

환영사, 축사, 개회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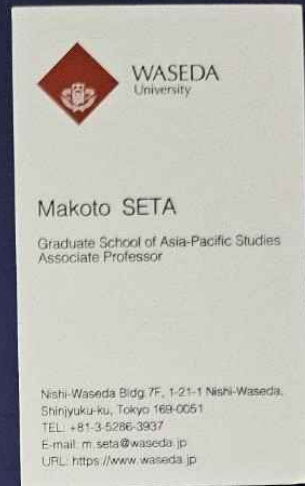
세션 1&2 사진



세션 1&2 사진



[별첨3] 세미나 참석자 명함





주ASEAN대표부

엄 태 호
참사관

Sentral Senayan II, 23F, Jl. Asia Afrika No. 8,
Gelora Bung Karno, Jakarta 10270
Tel (62 21) 5795 1830 Fax (62 21) 5795 1829
Mobile (62) 811 9808 410
thuhm05@mofa.go.kr

asean.mofa.go.kr



주ASEAN대표부

양 선 영
전문관

Sentral Senayan II, 23F, Jl. Asia Afrika No. 8,
Gelora Bung Karno, Jakarta 10270
Tel: (62 21) 5795 1830 Fax: (62 21) 5795 1829
Mobile: (62) 812 9034 0182
seyyang13@mofa.go.kr

asean.mofa.go.kr



주ASEAN대표부

차 복 희
1등 서기관

Sentral Senayan II, 23F, Jl. Asia Afrika No. 8,
Gelora Bung Karno, Jakarta 10270
Tel (62 21) 5795 1830 Fax (62 21) 5795 1829
Mobile (62) 0811 1067 6403
bheecha22@mofa.go.kr

asean.mofa.go.kr



NEIL BUCKLAND
First Secretary (Political Security)

Australian Mission to ASEAN
Jl. Patra Kuningan Raya Kav. 1 - 4
Jakarta Selatan 12950 Indonesia

Phone : +62 21 2550 6713
Mobile : +62 811 872 0129
E-mail : neil.buckland@dfat.gov.au



KIYA Masahiko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Mission of Japan to ASEAN

Jl. M.H. Thamrin No. 24,
Jakarta 10350, Indonesia

Tel : +62-21-3190-4901
E-mail : masahiko.kiya@mofa.go.jp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